

# 전북-대구, 우수 교육정책 공유

### 도교육청, 대구교육청과 정책협의회... IB 프로그램 분과서 논의 활발

### 'IB 월드스쿨 인증' 경북대사대부고 찾아 IB지식이론수업 등 참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2일 공교육 강화를 위해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전진석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IB 프로그램 △초등 학

력 및 기초학력 △중등 학력 및 기초 학력 △에듀테크 △학생생활지도 등 5개 분과별 정책협의회를 열어 서로의 정책을 공유했다.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전북교육청 직원들이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은 경북대사대부고를 방문해 IB 지식이론수업과 IB 생명과학 및 화학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특히 IB 프로그램 학교급별 주요 특징, IB 프로그램 도입 과정 및 추진 현황 등을 묻고 답하는 등 IB 프로그램 분과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 재단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에서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 학습 논·서술형 평가를 통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체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IB 프로그램은 2019년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IB 후보학교 승인을 받은 이후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도 IB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IB 준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 직원들은 이날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은 경북대사대부고를 방문해 IB 지식이론수업과 IB 생명과학 및 화학수업을 참관하는 등 IB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대구 방문에는 서 교육감과 한공수 정책국장 등 70여명이 함께 했다.

서 교육감은 "대한민국 공교육이 한 걸음 앞서나가는 데 서로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해 IB 프로그램을 선도하는 대구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게 됐다"면서 "전북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12일 ㈜함소이제약, ㈜핀컴퍼니와 신약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의약품·식품산업 발전 상호 협력

### 전북대, 함소이제약·핀컴퍼니와 협약 체결

### 신약 공동 연구개발·최신기술 정보 공유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2일 ㈜함소이제약(대표이사 조현주), ㈜핀컴퍼니(대표이사 신주연)와 신약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우수인프라를 발전에 대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전북대와 이들 기업은 신약 공동 연구개발 및 연구인력 교류, 산업현장 애로기술 지원 기술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최신 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인재와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신약 공동 연구 및 현장실습 운영, 협약 기관이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도 추진한다.

양오봉 총장은 "국내 최대 글로벌 헬스케어 한방제약 기업 및 식품업계를 이끄는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공동 추진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미래 아젠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대

학이 글로벌 대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주 대표이사는 "새로운 산·학 융합 모델과 공공 R&D 성과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대학 중심의 R&D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북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위한 가치적 성과를 내겠다"고 전했다.

신주연 대표이사는 "전북대와 손을 맞잡게 돼 든든하다"며 "연구분야 등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소이제약은 국내의 70여 곳의 함소이연구소와 미국 6개 도시에 함소이연구소원을 보유한 ㈜함소이의 자회사다.

또 ㈜핀컴퍼니는 국내 유일 비음쿠엔 생산 기업으로 스타벅스, 커피빈 등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과 계약을 맺어 단독으로 비음쿠엔 디저트를 납품하고 있다. /장은성기자

## '수석교사들, 학교에 온다' ... 교사 수업역량 강화

### 도교육청, 미배치교 대상 수석교사 시범수업·컨설팅 실시... 수업혁신 정책 일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수업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로 찾아오는 수석교사 시범수업·컨설팅을 실시해 교사들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날 도내 수석교사 미배치 학교를 대상으로 수석교사 시범수업 및 컨설팅을 실시해 교사들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2022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실제 사업 개시 2주 만에 초등학교 25개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만큼 수업의 질 향상과 전문성을 키우려는 교사의 의지가 매우 높았다.

학교로 찾아오는 수석교사는 수석교사가 신청 학급으로 찾아가 해당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시범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올 연말까지 이어진다.

시범수업 전·후에는 수업컨설팅도 진행된다. 수석교사와 신청교사 간 컨설팅에서는 평소의 수업 고민을 나누고, 해당 교과 주제에 대한 협의를 함께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수업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로 찾아오는 수석교사 시범수업을 운영한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특히 수석교사의 시범수업은 신청 학급 교사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 모든 교원에 공개된다.

이와 함께 사진·사후 수업컨설팅도 실시함으로써 도내 모든 학교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고, 수업혁신 실현을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섭 유초특목수업과장은 "학교로 찾아오는 수석교사 시범수업 혁신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모든 교사들이 협력해 교실 수업을 연구하고, 수업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교직원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좋은 수업 에세이 경진대회서 큰 성과

### 전주비전대 장시연 '최우수'

### 한승우·김효빈 '우수상'

전주비전대학교 재학생들이 한국전 문대학교수학발전협의회(이하 KCTL)에서 주관하는 '2023 좋은 수업 에세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주대학 재학생 대상 좋은수업 수기공모 및 우수수업으로 선정된 교수자의 교수법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

이에 전주비전대 간호학부 2학년 장시연 학생이 최우수상을, 간호학부 4학년 한승우 및 응급구조학과 1학년 김효빈 학생이 우수상을 받았다.

'수업으로 인생을 배우다' 삶의 전환점(turning point)이란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시연 학생은 "교수님의 특별한 수업방식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며 "앞으로 다양한 경진대회에 참여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는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팀 센터장을 비롯해 학사지원처 이원희 처장, 간호학부 유승희 교수 등이 수상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

우병훈 총장 직무대행은 "학교를 대표해 좋은 성적을 낸 학생들에게 고맙다"며 "좋은 수업을 준비해 준 우리대학의 교수역량과 성실하게 수업에 임해 준 학생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진로체험프로그램, 학교별 특성에 맞게

### 도교육청, 올 총 281개교 지원... 전주제일고서 학과 박람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들의 흥미·적성 등에 맞는 진로진학을 위해 학교별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올해 중학교 171개교, 고등학교 110개교 등 총 281개교에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진로체험프로그램은 학과 박람회, 진로캠프, 진로진학상담 등 학교별 자체 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전북교육청은 올해 총 27억여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12일 전주제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진학 설계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과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과 박람회는 도내 8개 대학 입학처의 협조를 얻어 34개 학과 부스

를 개설,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를 직접 탐방하면서 개별 학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과를 발견, 직업세계에 대한 시야를 넓혀 합리적인 진학 로드맵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61개교에서는 대학생 멘토 초청 학교별 진로멘토링도 운영한다. 친숙한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면서 재학생들로부터 큰 도움을 얻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단위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 △미래사회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진로교육 맞춤형 지원 △교



원의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지원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아 진로교육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학습의욕 증진 및 동기 유발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더욱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직업세계를 다각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올 도입 학교폭력 예방 집중 지원학교 사업 효과 '톡톡'

### 지난 3월부터 전주·군산·익산지역 20개 학교 대상

### 도교육청, 상반기 6억원 예산 투자... 신고건수 감소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올해 처음 도입한 학교폭력 예방 집중 지원학교 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전주·군산·익산지역의 학교폭력 다수 발생학교 20곳을 학교폭력 예방 집중 지원학교로 선정했다.

이들 학교에는 상반기에만 6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폭력 담당교사 수업 경감, 학급 단위 관계 형성 프로그램, 따뜻한 학급문지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연극,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해당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 결과 전주 A중학교는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16건에서 5건으로 줄었고, 전주 B고등학교는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건수가 12건에서 6건으로 감소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학교폭력 담당교사는 "학교폭력 예방 집중 지원학교에 선정된 후 수업 시수가 줄어든 만큼 예방교육과 시간 초기 신속한 대응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컨설팅 결과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수업 경감을 위한 강사 확대 지원 요청이 있어 1억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했다"면서 "학교폭력 예방 집중 지원학교 운영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을 확대해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aT,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 위원회 위촉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시행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주관하는 2023년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위원회 위촉 및 심의가 지난 11일 전주대학교 본관에서 열렸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외식업체의 빠른 적응 및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농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외식업체 경영상태 자가 진단 도구 개발, 온라인 교육 동영상 제작·배포, 외식업체별 맞춤형 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실행하게 된다.



또한 경영상태 자가 진단 및 온라인 동영상 교육은 무료로 지원된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위원회는 자문 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 당해 사업 기간까지 활동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